

우리 나라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 연구

金 鑣 玖 · 李 裕 卿*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대원공과대학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

A Study on the Clothing Behaviors of the Korean Elderly Men

Jin-Goo Kim and Yu-Ky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aewon Technical College*

目 次

Abstract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I. 서 론	4. 조사대상자의 특성
II. 노년기 남성 의복에 관한 선행연구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	1. 의복행동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행동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의 상관관계
1. 연구문제	V. 결 론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참고문헌

Abstract

Elderly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ing, therefore, social and economical influence of the elderly people has been increasing, too. Recently, research regarding elderly people is important because many elderly men take care of their appearance and clothing, and cloth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behavior of men aged 55 years and older who were residents of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a interview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t various pla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importance of various factors on clothing behavior is different.
2. Age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ashion and satisfaction of clothing. Education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onformity, but,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esthetics and satisfaction of clothing. Allowanc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ll clothing behaviors factors except conformity.

3. Life satisfac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ducation and allowance, also, life satisfaction of occupation group is higher than no occupation group.
4. Appearance satisfaction has not a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age, bu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ducation.
5.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not only life satisfaction and clothing behavior factors, but also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lothing behavior factors except conformity.

I. 서 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의학과 사회 각 부분의 발달을 초래하여,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혜택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대 및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계층질은 현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노령화 사회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노인의 평균수명과 노인 인구의 규모를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1992)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수명은 1970년 63.2세, 1980년 65.8세, 1990년 71.3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에는 74.3세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인 노년인구의 비율이 1970년에 3.3%이고, 1980년에 6.1%, 1990년도에 7.6%였다. 통계청(1993)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2000년에는 10.98%, 2010년에 14.23%, 2020년에 20.10%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심리적 위축 및 상실감,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경제적 불안정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연령층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의 노인들은 노년기의 경제적, 심리적 문제점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노후대책에 더욱 신경을 쓰며, 자신의 건강과 취미를 위해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늘어나고 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역시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지에서, 노인은 현대 사회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점차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노인들은 그들의 의모와 의복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의복은 노년층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보완하여 자아상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노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노인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을 연계시켜, 노년층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기성복 적합도, 심리적 특성과 의복구매행동,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기성복 적합도와 의복구매행동 등을 관련짓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구, 서미아, 이유허, 이선희(1995)의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및 의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했으며, 남윤자, 유희숙(1996)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및 비판 정도를 고려한 체형별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연령별 기성복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동안 남성은 여성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평가되어져서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남성 역시 노인기로 접어들면서 여성 노인과 다를 바 없이 신체 및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복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짐에 따라 남성의 의복 관심도 꾸준히 높아져왔다. 이처럼 여성 노인들의 의복행동연구는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남성노인 의복행동연구는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며, 우리 나라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나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의모만족도와 의복행동을 관련짓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성 노인들과는 또 다른 의복을 행동을 나타내리라 보여지는 우리 나라 남성 노인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진구, 이윤희(1995)의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에 이어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나라 노인남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의복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남성노인 의복연구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노인 의복연구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노년기 남성 의복에 관한 선행연구

1. 의복행동

노인에게 있어서 의복이란 자신의 가치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Hwang(1993), Hogge와 Baer(1986) 및 박미애(1987)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은 그들의 외모와 의복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중요성을 부여하며 또한 실제로 노인에게 의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이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심리적 근거를 들 수 있다. Chowdhary(1988)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는 주어진 대상이기 보다는 만들어가는 대상이므로 적절한 의복 착용은 노인의 외모와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무언의 전달체라고 하였다. Bader(1963)도 의복이 외모를 향상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Sontag와 Schalter(1982)도 개인의 자아개념은 삶의 질을 지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의복은 심리

적으로 자아에 가장 가까운 대상임을 지적했다. 즉, 의복이 삶의 질을 지각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의복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년기에는 물질적인 만족보다도 심리적인 만족을 더 원하며 사회나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심리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때 의복은 노인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명희, 이은실(1997)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연령층과 같이 노년층에게도 외모가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이 크며, 자신의 용모에 만족할 때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아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한 박미애(198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Hoffman(1970), Callis(1982), 임치경(1984) 및 Kernaleguen(1978)도 노인에게 있어서 의복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고 상실감을 보완해 주며 사회적 수용 및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Ryan(1966), Ebeling & Rosencranz(1961), Workman & Johnson(1989)은 즐거움을 주는 외모나 의복의 청결함 및 적합성은 노인의 품위와 사회적 권위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노인에게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노인 의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외형적인 신체적 변화와 건강면에서의 신체노화가 노인 의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Baum와 Boxley(1983)는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신체적 변화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젊어보이기 위해 의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Kimmel(1974)도 노인의 신체 변화는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자아개념과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은 노인들의 부적절한 신체변화를 감추어 주고 보완해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Rosencranz(1972)는 노인복이 신체 이미지(body image)보다는 의복 이미지(clothing image)를 강조함으로써 노인들의 매력도를 더 중

진사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노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의복 문제를 지니며, 이는 노인들만의 독특한 의복행동으로 나타난다. Kernaleguen(1978)은 노인들이 의복선택시 안락감, 가격, 관리 용이성, 보은성도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았으며 맞춤새와 스타일을 가장 중시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노인들의 의복 흥미도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김순구 등(1993)은 주장하였다.

노인들은 그들의 외모를 보강하기 위해 의복을 중요하게는 생각하나, 착용방법에 있어서 개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이 착용한 것을 모방하므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한 동조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노인집단은 성인집단에 비해 동조성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Hartup(1970)은 동조성과 연령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일정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동조성은 동조행동의 종류, 성별, 동조압력을 가하는 주체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하였다. 고영복(1980)은 사회적 승인 욕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동조행동의 정도는 자신감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므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보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이 더 동조한다고 주장하였다.

Horn과 Gurel(1981)은 노인들이 의복의 안락감뿐 아니라 전체적 외형과 유행에도 관심이 있음을 강조했다. Kernaleguen(1978)도 노인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바람직한 외모를 갖고자 하므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인지되는 것이 두려워서 최신 유행에 동조하며 그러기 위해서 대중매체나 인적 정보원으로부터 유행정보를 얻고자 한다고 하였다. 유행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적게 접한 사람보다 최신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Chowdhary(1988)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Huddleston, Ford, Bickle(1993)은 노년층 내에도 유행의견 선도자가 있으며, 높은 자존심을 가진 노인과 낮은 자존심을 나타낸 노인들 간에는 유행성에 있

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Chowdhary(1988)는 노인들의 연령지각과 유행성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68%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실제 연령보다 젊게 지각했으며 28% 노인들은 실제 나이와 동일하게 지각했고 단지 3%만이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지각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명희, 이은실(1995)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여성의 의복관심과 자신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외모관심과 자신감이 더 높았고, 용돈이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보다 의복관심, 신체장식, 자신감이 더 높았다. 또한 의복관심은 자신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즉, 의복관심도가 높은 노인은 의복을 통해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므로 적절한 의복이 전반적인 자신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교육수준, 건강상태, 생활수준, 연령은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행동

Neugarten(1961) 등은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① 현재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② 본인의 인생을 의미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절대적 수용, ③ 바라던 목적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를 이룸으로써 인생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감정, ④ 긍정적인 자아상, ⑤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에 대한 유지를 들고 있다.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 가치 있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나 주관적 복지상태를 나타내 주는 일종의 감정상태이다. 이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전생애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생활만족이란 현재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수입, 직업, 사회적 지위, 교육, 결혼상태, 사회적 활동 등이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노인층에 있어서는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사회적 활동이 주요인자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가정내의 역동적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외에 가정내 위치, 여가선용 상태, 경제상황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각 변인의 중요도는 개인과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생활과학연구소(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성역할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여성들은 자녀들이 출가한 후의 공허한 상태 즉, '빈 등우리 현상'을 통해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게 되며, 남성은 퇴직이라는 현상을 통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남성, 여성 모두 노년기에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나 남자 노인이 느끼는 사회적 역할의 축소에 의한 영향보다는 여성 노인이 느끼는 가정내 역할의 감소가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만족도는 노인기의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김순구(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부산거주 성인, 노인 남녀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의복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며, 박미애(1987)는 서울 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한 연구에서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복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의복관심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어 생활에 만족할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의복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고 유경숙(1984)은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는 의복의 맞춤새에 대한 만족과도 비례한다. 김영애(1991)는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성복에 대해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외모만족도란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모습이나 전체적 모습, 신체 움직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Hwang(1993)은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입, 사회 참여도, 사회적 지

위, 교육수준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외모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정희용(1987)은 노인의 경우 교육정도와 계층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밝히고, 황진숙(1997)은 노인들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신체만족도를 고찰한 결과, 여성 노인과 비교하여 남성 노인은 모든 신체 부위에서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Hwang(1993), 강혜원, 이선경(1990), 김순구(1993)도 노인에게 있어서 외모만족도는 의복행동 및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LaBat (1988), LaBat과 DeLong (1990)은 외모만족도와 기성복의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강한 정적 관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여성보다 기성복 만족도도 높았으며, 남녀 모두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황진숙(1997)의 연구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특히 Hwang (1993)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신체만족도는 자아개념 및 의복행동과 더욱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유경숙 (1984)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자아 개념은 서울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의복관심과, 광주집단은 의복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년기 여성의 외모만족도는 의복행동(의복태도, 기성복 만족도, 쇼핑 만족도, 쇼핑동반자, 의복비 지출) 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Hwang (1993)은 보고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다른 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남성 노인 연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관련하여 차제에 우리 나라 남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의복행동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보며, 더욱이 생활만족도, 외모만족도 뿐 아니라 인구통계적 변인들과도 관련짓는 폭넓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의복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체로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55세 이상의 노년기 남성으로 하였다. 이는 남성에 있어서 대체로 55세가 노년기로 인지하기 시작되는 시점이며, 또한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전체 남성 인구에서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연령층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예비조사를 거쳐서, 1998년 6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의 훈련받은 면접자가 노년기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노년기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기작성 질문지법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례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응답능력에 따라 인터뷰 및 자기응답식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시내의 구민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원, 노인정, 기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친·인척 노년기 남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650부를 배부하여 543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50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1) 의복행동

Creekmore(1963)가 개발한 의복행동에 관한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504)

	구 분	N	%
연 령	55~64세 이하	393	78.0
	65세 이상	111	22.0
가족생활 형태	아내와 둘만 산다	81	16.1
	아내와 자녀와 산다	374	74.2
	아내없이 자녀와 산다	36	7.1
	혼자 산다	11	2.2
	기타	2	.4
학 령	국민학교 졸업 이하	75	14.9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0	53.6
	전문대학교 이상	159	31.5
직업유무	있다	347	68.8
	없다	157	31.2
수입원천	본인과 아내의 수입	346	68.7
	본인과 아내의 연금	38	7.5
	임대료·이자 등의 자산소득	40	7.9
	자녀의 수입	55	10.9
	자녀용돈	20	4.0
	무 용	5	1.0
	무 용	5	1.0
월평균 총수입	100만원 미만	99	19.6
	101만~200만원	229	45.4
	201만원 이상	165	32.7
	무 용	11	2.2
용 돈	10만원 미만	92	18.3
	11만~20만원	246	48.8
	21만~40만원	115	22.8
	40만원 이상	46	9.1
	무 용	5	1.0
체 형	마른체형	169	33.5
	표준체형	250	49.6
	뚱뚱한 체형	85	16.9

문항을 비롯하여 강혜원(1974, 1976), 김순구(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48문항을 선정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의복 행동을 측정하였다.

2) 생활 및 의도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윤진(1982)이 개발한 척도와 김순구(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8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의복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Secourd와 Jourard(1953), 구자명(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생활 및 의도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 /PC를 사용하여, 의복행동, 생활 및 의도 만족도, 의복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일원분산분석, t-test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연령, 가족생활주기 형태, 학력, 직업유무, 수입원천, 월평균 총수입, 용돈, 체형별로 구분하여 <표 1>에 나타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는 서울 시내 거주자로 55세 이상이며 대체로 아내 및 자녀와 같이 살고 교육수준이 다소 높고 직업이 있으면서 비교적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을 분석한 결과, 의복행동을 구성하는 8개 요인의 평균은 각기 다른 점수 및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복중요성(3.649)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리성(3.406), 의복 만족성(3.277), 의복 의존성(3.129), 심미성(2.973), 유행성(2.586), 흥미성(2.457), 동조성(2.445)의 순서로 점차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의복중요성과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동조성은 각각 3.649와 2.44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의복행동 요인의 평균 (N=504)

의복행동	평균
의복 중요성	3.649
관리성	3.406
의복 만족성	3.277
의복 의존성	3.129
심미성	2.973
유행성	2.586
흥미성	2.457
동조성	2.445

이와 같이 남자 노인들의 경우, 의복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복이 의모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적절하게 입는 것을 매우 중시함을 나타낸다. 특히, 남녀 모두에게서 관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착용시의 안락감과 맞춤새를 위해 의복의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의복의 외적 측면은 그 중요도가 다소 감소하고, 반면 안락감 및 맞춤새의 중요도는 크게 부각된다고 한 강혜원(1990) 등의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Kernaleguen(1978)도 노인들이 의복선택시 맞춤새를 가장 중시했으며, 안락감, 가격, 관리 용이성, 보온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고 하여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남녀 노인 모두에게서 동조성은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의복 중요성과 관리성은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반면 흥미성과 동조성은 설명력이 가장 낮은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인과 노인의 동조성을 비교했을 때에는 노인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노인의 의복행동 요인들을 비교한 본 연구 결과는 이처럼 동조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의복행동의 각 요인과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들을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복행동은 각 인구통계적 변인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표 3> 의복행동과 연령과의 상관관계
(N=504)

의복행동	64세 이하	65세 이상	t
의복 중요성	3.6301	3.7176	-1.292
흥미성	2.4914	2.3348	1.853
동조성	2.4543	2.4136	0.662
의복 의존성	3.1340	3.1114	0.307
심미성	2.9711	2.9803	-0.123
관리성	3.3759	3.5090	-1.829
유행성	2.6225	2.4595	2.215*
의복 만족성	3.2258	3.4576	-3.895***

* p<0.05, ** p<0.01, *** p<0.001 에서 유의함.

수 있다.

먼저,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집대상을 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은 유행성과 의복만족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더 유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의복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더 낮았다. 그 외에 의복중요성, 흥미성, 동조성, 의복의존성, 심미성, 관리성은 의복행동의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Hartrup(1970)은 동조성과 연령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일정한 관련성을 발견

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노년기 남성의 동조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한 본 연구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행성 및 의복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연령은 노년기 남성 의복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력과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학력을 국민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이상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조성과 심미성, 유행성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의복만족도는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동조성이 낮아지고 심미성과 의복 만족성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행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보다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자신감과 자아실현 정도가 높으므로, 자신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에게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난다고한 고영복(1980)의 주장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 외에도 의복중요성과 의복의존성, 관리성에서도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복행동과 용돈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용돈을 10만원 이하, 11~20만원, 21~40만원, 41만

<표 4> 의복행동과 학력과의 상관관계
(N=504)

의복행동	국민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이상	F
의복 중요성	3.5400	3.6337	3.7272	2.480
흥미성	2.4612	2.4521	2.4620	0.009
동조성	2.5933	2.4651	2.3418	5.423**
의복 의존성	3.0714	3.1116	3.1851	0.895
심미성	2.7978	2.9430	3.1097	5.740**
관리성	3.2568	3.4073	3.4724	2.564
유행성	2.5267	2.5144	2.7363	5.615**
의복 만족성	3.0956	3.2012	3.4885	19.057**

* p<0.05, **p<0.01, ***p<0.001에서 유의함.

<표 5> 의복행동과 용돈과의 관계

(N=504)

의복행동	10만원이하	11~20만원	21~40만원	41만원이상	F
의복 중요성	3.4692	3.6274	3.7508	3.8551	5.437***
흥미성	2.3786	2.3857	2.5950	2.6304	2.903*
동조성	2.4103	2.4770	2.4454	2.3111	1.198
의복 의존성	2.9535	3.1058	3.2509	3.2764	4.102**
심미성	2.7015	2.9298	3.1431	3.2790	10.740***
관리성	3.2216	3.3805	3.5219	3.6486	5.572***
유행성	2.4370	2.5089	2.7667	2.8225	7.143***
의복 만족성	3.0741	3.2049	3.4739	3.5815	15.929***

* p < 0.05, ** p < 0.01, *** p < 0.001에서 유의함.

원 이상의 범주로 나누었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용돈과 의복행동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의복중요성,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흥미성은 $p < 0.05$ 수준에서 용돈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조성은 용돈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동조성을 제외한 의복중요성, 흥미성,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이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이 많을수록 의복의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위를 나타내는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을 뿐 아니라 유행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로써, 노년기 남성은 용돈에 따라 의복행동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배경 변인 중 연령이나 학력보다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남성에게 있어서 용돈뿐 아니라 경제력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6>은 직업 유무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남자노인에게 있어서 직업 유무는 의복행동 중 동조성과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다. 즉, 직업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욱 집단성원들의 의복을 통해 의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집단의 의복규범에 동조함으로써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표 6> 의복행동과 직업유무과의 관계

(N=504)

의복행동	유	무	t
의복 중요성	3.6613	3.6223	0.645
흥미성	2.4576	2.4544	0.043
동조성	2.3960	2.5531	-2.890*
의복 의존성	3.1224	3.1438	-0.324
심미성	2.9917	2.9327	0.878
관리성	3.4213	3.3707	0.772
유행성	2.6077	2.5387	1.039
의복 만족성	3.3036	3.2187	1.579

* p < 0.05에서 유의함.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의복중요성, 흥미성, 의복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만족성 등의 의복행동과 직업 유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오랜 직장생활 끝에 은퇴를 하였더라도 그에 준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때의 의복을 고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341명인 반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154명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두 집단을 단순 비교하여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남자 노인의 의복행동과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 배경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변인은 용돈

이었으며, 그 다음은 학력, 연령, 직업 유무의 순이었음을 확인하였다.

2.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

조사대상 노년기 남성의 전체 생활만족도 평균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2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만족도가 낮아진 이유는 남성 노인이 가장으로써 일생동안 저야할 책임과 직장이나 사회에서 느끼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최근 IMF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총체적 혼란

<표 7> 생활만족도와 외모만족도 평균 (N=504)

생활만족도		3.3286
외모만족도	인상만족도	3.2495
	신체만족도	3.1518
		3.2007

<표 8>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평균 (N=504)

인구통계적 변인	구 분	생활만족도 평균
연 령	64세 이하	3.3245
	65세 이상	3.3430
	t	-0.273
학 력	초등학교졸업 이하	3.1562
	고등학교졸업 이하	3.2646
	전문대학 이상	3.5184
	F	7.991***
용 돈	10만원 미만	3.2000
	11만~20만원	3.3085
	21만~40만원	3.3874
	40만원 이상	3.5614
	F	3.748*
직업 유무	있다	3.3891
	없다	3.1932
	t	3.232***
전 체		3.3286

* p < 0.05, ** p < 0.01, *** p < 0.001에서 유의함.

속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집대상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와 같은 배경변인과 관련시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연령을 구분하여 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65세 이상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3.3430이고 64세 이하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3.3245로 나타났다. 그러나 t-test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바, 연령이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구분하는 척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F값은 0.991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용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한달 용돈 액수에 따라 10만원 미만, 11만~20만, 21만~40만원, 40만원 이상과 같이 4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용돈에 따라 분류된 4집단의 생활만족도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한달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조사대상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년기 남성의 생활전반에 걸친 만족감은 용돈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고찰하였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경우의 생활만족도 평균이 3.3891, 직업이 없는 경우의 평균이 3.1932로 p < 0.001 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 노인들의 일에 대한 성취감과 함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가, 용돈의 액수가 적은 집단보다 많은 집단이, 그리고 직업이 없는 집단보다 직업이 있는 집단이 생활 전반에 걸쳐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만족도 (N=504)

인구통계적 변인		외모만족도	
		신체 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연령	64세 이하	3.1220	3.2152
	65세 이상	3.2569	3.3705
	t	-1.655	-1.870
용돈	10만원 미만	3.1337	3.0275
	11만~20만원	3.1024	3.2235
	21만~40만원	3.2568	3.4049
	40만원 이상	3.1667	3.4889
	F	1.105	5.7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9051	3.1367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786	3.1972
	전문대학 이상	3.2201	3.3908
	F	3.780**	3.351*
직업 유무	있다	3.1760	3.2807
	없다	3.0989	3.1811
	t	1.057	1.339
전체		3.1518	3.2495

*p<0.05, ** p<0.01, ***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는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만족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외모만족도 중 신체만족도의 평균은 3.1518이며 얼굴 및 인상만족도의 평균은 3.2495로 신체보다는 얼굴 및 인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도 64세 이하 집단과 65세 이상 집단 모두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력, 용돈, 직업 유무 등의 변수에 따라 구분된 집단 모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모든 집단에서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신체만족도보다 높은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

형이 변화하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신체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얼굴의 변화는 비교적 적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며 대인관계는 원만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체평균이 3.2007인 외모만족도는, 65세 이상의 집단의 경우가 3.3137, 64세 이하의 집단의 경우가 3.1685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64세 이하가 3.1220, 65세 이상이 3.2569로 나타났으며,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64세 이하가 3.1252, 65세 이상이 3.3765로 나타났다. 그러나 t-test 결과 연령에 따른 두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은 남성 노인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력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신체만족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용돈은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용돈이 많을수록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 유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노년기 남성들의 신체만족도는 단지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학력과 용돈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용돈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나머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연령은 신체만족도, 인상 및 얼굴만족도, 생활만족도 모두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력은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 생활만족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용돈은 인상과 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직업 유무는 생활만족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직업이 있는 경우가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신체만족도, 인상 및 얼굴 만족도와는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의 상관관계

의복행동은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만족도는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중요성(0.147, $p < 0.01$), 흥미성(0.174, $p < 0.01$), 의복 의존성(0.150, $p < 0.01$), 심미성(0.292, $p < 0.01$), 관리성(0.235, $p < 0.01$), 유행성(0.182, $p < 0.01$), 의복 만족성(0.218, $p < 0.01$) 등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동조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노년기 남성의 복식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복행동과 외모만족도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외모만족도 중 신체만족도는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 즉, 의복 중요성(0.141, $p < 0.01$), 흥미성(0.122, $p < 0.01$), 의복 의존성(0.125, $p < 0.01$), 심미성(0.314, $p < 0.01$), 관리성(0.329, $p < 0.01$), 유행성(0.119, $p < 0.01$), 의복만족도(0.215, $p < 0.0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고찰한 생활만족도와도 같은 결과이다.

<표 10> 의복행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N=504)

의복행동	생활만족도
의복 중요성	0.147**
흥미성	0.174**
동조성	-0.001
의복 의존성	0.150**
심미성	0.292**
관리성	0.235**
유행성	0.182**
의복 만족성	0.218**

* $p < 0.05$, ** $p < 0.01$, *** $p < 0.001$ 에서 유의함.

<표 11> 의복행동과 외모만족도의 상관관계 (N=504)

의복행동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의복 중요성	0.141**	0.238**
흥미성	0.122**	0.189**
동조성	0.019	0.045
의복 의존성	0.125**	0.176**
심미성	0.314**	0.366**
관리성	0.329**	0.313**
유행성	0.119**	0.167**
의복 만족성	0.215**	0.292**

* $p < 0.05$, ** $p < 0.01$, *** $p < 0.001$ 에서 유의함.

얼굴 및 인상 만족도는 신체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의복중요성, 흥미성, 의복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중요성($r=0.238$, $p < 0.01$), 흥미성($r=0.189$, $p < 0.01$), 의복 의존성($r=0.176$, $p < 0.01$), 심미성($r=0.366$, $p < 0.01$), 관리성($r=0.313$, $p < 0.01$), 유행성($r=0.167$, $p < 0.01$), 의복만족도($r=0.292$, $p < 0.01$)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얼굴 및 인상만족도는 동조성과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조성은 외모만족도의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 모두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인상만족도로 나누어지는 외모만족도 역시 노년기 남성의 복식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활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외모만족도 모두는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조성은 위의 세 가지 만족도, 즉 생활만족도,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어느 것보다 관련성을 갖지 않았는데, 이것은 노년기 남성의 동조성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기인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노년기 남성의 의복행동은 의복중요성, 흥미성, 동조성, 의복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만족성의 8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요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의복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성, 의복만족성, 의복의존성, 심미성, 유행성, 흥미성, 동조성의 순이었다.
2. 의복행동은 배경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65세 이상과 64세 이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유행성과 의복만족성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유행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력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 의복만족도가 노년기 남성의 학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동조성이 낮아지고 심미성과 의복만족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유행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보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용돈과 관련해서는, 용돈이 많을수록 동조성을 제외한 의복중요성, 흥미성,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만족성이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직업 유무는 의복행동의 8개 요인 중 동조성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노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연령을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용돈의 액수

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외모만족도에서는 신체 만족도보다 얼굴 및 인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64세 이하와 65세 이상 집단 모두에서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신체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모만족도는 연령에 따른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용돈이 많을수록 얼굴 및 인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 의복행동은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생활만족도는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중요성, 흥미성, 의복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만족성 등은 더 높게 나타났다.
 6. 외모만족도 중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외모만족도 모두는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신체만족도와 얼굴 및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중요성, 흥미성, 의복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의복만족성 등은 더 높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 노인들은 의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비교적 의복에 만족하는 반면, 의복동조행동에는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용돈, 직업 유무를 고찰해 본 결과, 용돈의 다소가 의복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학력, 연령, 직업 유무의 순으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만족도는 연령과는 무관한 반면, 학력이 높고 용돈이 많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에서는 용돈이 많을수록 얼굴 및 인상만족도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 얼굴 및 인상만족도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용돈과 학력이 생활만족도뿐 아니라 외모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는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바,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행동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동조성은 어느 것과도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점차 노년기 의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노인의 의복행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했던 여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며, 서울로 한정시켰던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노년기 의복에 대한 이론 정립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의생활에 대한 더욱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6, 1974.
- 강혜원 · 이선경, 노년층 남녀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의복 연구. 생활과학논집, 4, 연세대학교, 5-16, 1990.
- 건강생활과학 연구소 편, 현대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 법문사, 1980.
- 구자명, 사춘기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 동기 및 사회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순구,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 · 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양진,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진구, 차옥선, 서미아, 박재욱, 우리나라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1994.
- 김진구, 이유경,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2), 347-370, 1995.
-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1), 57-74, 1995.
- 남윤자 · 윤희숙,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I) -노년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만족도-. 한국의류학회지, 20(6), 962-974, 1996.
- 박미애, 노인여성의 신체적 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 의 관계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유경숙,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 및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15-24, 1997.
- 윤진,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제작연구, 학술발표논문 초록, 한국심리학회, 1982.
- 이명희 · 이은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1072-1081, 1997.
- 이은실 · 이명희, 노년기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관여에 관한 연구. 복식, 25, 233-247, 1995.
-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장인협 ·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정희용 · 임숙자,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333-342, 1988.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5권 -인구이동 & 8권- 고령자, 1992.
- 통계청,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1993.
- 황진숙, 남녀 노년층의 자아존중과 기성복만족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1(8), 1417-1426, 1997b.

- 황진숙,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신체만족도와 의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79-187, 1998.
- Bader, I.M. An exploratory study of clothing problems and attitude of group of older women in Iowa city, *Adding Life to Years*, 10, Supplement No.10, 3-6, 1963.
- Baum, S., & Boxley, R.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532-537, 1983.
- Callis, C. Appearance programs with female chronic psychiatric patients: A comparison of six-week and nine-week treatment interven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48(4), 34-39, 1982.
- Chowdhary, U. Self-esteem, age identification, and media exposure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to fashiona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1), 23-30, 1988.
- Creekmore, A.M.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1963.
- Ebeling, M., & Rosencranz, M.L.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464-465, 1961.
- Hartup, W.W. Peer interac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mussen, P.H. ed., *In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0.
- Hoffman, A.M.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opl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0.
- Hogge, V.E. & Baer, M.M. Elderly women's clothing: Acquisition, fit, and alterations of ready-to-wear gar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333-341, 1986.
- Horn, M. & Gurel, 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81.
- Huddleston, P., Ford, I., & Bickle, M.C. Demographic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fashion opinion leadership among matur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26-31, 1993.
- Hwang, J.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of men and women aged 55 years and ol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93.
- Kernaleguen, A. *Clothing designs for the handicapped*. Edmonton: The University of Alberta Press, 1978.
- Kimmel, D.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4.
- Labat, K.L.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1988.
- Labat, K.L., & DeLong M.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1990.
- Neugarten, B.L., Havighurst, R.J. & Tobin, S.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1961.
-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2.
-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 Secourd, R., & Jourard, S.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1953.
- Sontag, M.S. & Schalter, J.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1982.
- Workman, J.E. & Johnson, K.P. The Role of Clothing in Perpetuating Age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81(3), 11-15, 1989.